

국힘, 8년만에 집단체제 돌아가나



국민회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총선 패배 후 집단→단일체제...연이은 참패에 회귀 목소리 이번주 당헌당규 개정 착수...전대를 변경 이어 지도부 변화 관심

국민회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당내 고인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국민회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 패배하자 집단체제를 단일체제로 바꿨다. 그러나 이후로도 두 차례 총선에서 연거푸 참패하자 최근에는 과거의 집단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일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한다.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된다. 8년 전 단일체제로 전환한 것은 기존 집단체제에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의 극심한 계파 갈등이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로 들어선 단일체제는 대동령과의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당 대표의 비호감도 또는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해 오히려 '독보다 실이 많았다'는 반성이 뒤따랐다.

최근의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정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도 당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집단체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체제 당권에 도전할 경우 '대세론'이 형성돼 전당대회 흥행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여러 주자의 경쟁으로 침체한 당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데, 자칫 맹랑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 뒤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당 대표 출로 주목받는 단일체제보다는 대권 잠룡들이 지도부에 두루 포진하는 집단체제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당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단체제의 전당대회 흥행 효과는 담이고, 차기 주자 육성을 위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단체제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전당대회로 구성된 김무성·서정원·김태호·이인제 등의 집단체제다.

다른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회의만 열면 최고위원들이 사사건건 부딪혔던 '봉숭아학당 시즌2'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단체제로 전환하지는 주장의 이면에 '한동훈 견제론'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회의는 지도부 변화 여부를 놓고 분출하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전당대회 틀을 확정하기 위한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이번주 중 꾸릴 예정이다. 특위에선 현재의 '당원 투표 100%' 선출방식도 논의될 예정이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0~3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집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두 경청하고 있다"며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당헌당규개정특위를 꾸리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의견대로 7월 중하순 전대를 치르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2주 내 당헌당규 개정 등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번주 초에 특위 인선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연합뉴스 kroh@kwangju.co.kr

유승민 "지구당 부활, 정치 신인에 진입장벽"

SNS에 한동훈 발언 반대 입장 국민회의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지구당 부활이 원의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지구당 부활론을 둘러싼 당내 찬반 논쟁에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의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의 당협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며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불공정은 '현직 대비현직' 사이의 문제"라며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

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한동훈 국민회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꺼내 들면서 여론에서 화두가 됐다.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이 동조했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편에 섰다. /연합뉴스

당정 "신병 훈련 실태·병영 여건 긴급 점검"

재발 방지 대책 추진...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키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회의는 최근 군기훈련 도중 기동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회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군기훈련 가이드라인이 군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남광주 환승역 개통, 시장 도약 계기 삼아야"

안도걸 의원 상인회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2일 남광주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남광주시장 시장 상인회 손승기 회장, 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 최재호 회장, 조선대 배상현 교수, 흥기월 시의원, 박미정 시의원,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감소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운누리상품권과 같은 지류로 지급하여 노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도걸 의원은 "2026년 광주지하철 1,2호선 남광주 환승역 개통을 남광주시장의 일대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환승역 연결 통로를 만들어 지하철 승객과 타지역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농수산물 기준가 미만 하락시 차액 국가 지급"

문금주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 탓에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이 크고,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수입

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시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